

한의학대학 재학생의 진료기록부 작성 현황과 관련 교육과의 연관성

이원택¹⁾ · 박진호¹⁾ · 김선경²⁾ · 박상은³⁾*

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

²⁾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³⁾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교수

Korean Medicine Students' Medical Record Writing Ability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Related Education

Won Taek Lee¹⁾, Jin Ho Park¹⁾, Seon Kyoung Kim²⁾, Sang Eun Park³⁾*

¹⁾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²⁾ Dep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³⁾ Dept. of Korean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We tried to clarify the difficulties the Korean medicine students face when writing medical record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urses on medical record writing.

Method : An online-based questionnaire survey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and conducted to 5 medical volunteer groups at 1 Korean medicine college.

Results : 89%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written medical records while volunteering, all of them using paper charts.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medical records and their difficulties in writing them increased altogether according to their academic year. Top 3 difficulties were: (1) writing the medical record while simultaneously communicating with the patient, (2) phrasing the answers in terminology appropriate for medical records, (3) being aware of questions they missed to ask & reviewing the patient's previous medical records (tied).

Conclusion : Students of higher academic year, despite having more knowledge, experienced more difficulties while writing medical records. Their main challenge is in the actual use of the medical records in clinical field.

Key words : Medical records, Korean Medicine, medical education, Clinical Presentation Curriculum

• 접수 : 2024년 11월 29일 • 채택 : 2024년 12월 7일

*교신저자 : 박상은, 47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전화 : 051-850-8752, 팩스 : 051-867-5162, 전자우편 : pse@deu.ac.kr

I. 서론

의료행위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¹⁾ 특히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환자의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²⁾³⁾

현대의 의학 발달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확대에 따라 의료관련 소송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21년 46,921건에서 2023년 54,22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역시 2022년 38건에서 2023년 55건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⁴⁾

민사상 의료분쟁소송의 쟁점은 크게 의사의 진료상의 주의의무위반이 그 기준이 되는 ‘진료상의 과실’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다.⁵⁾⁶⁾ 의료감정은 이러한 쟁점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⁷⁾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한 D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을 파악하고, 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진료기록부 관련 차등 교육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과 학생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는 이후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설 시 활용되어 진료기록부 작성능력을 키우고, 의료분쟁 발생 시 소명 능력을 키우는 데 활용될 수 있겠다.

II. 연구방법 및 분석도구

1. 연구방법

1) 설문지 개발

기존에 한의대생의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김안나 등(2024)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자체 개발한 진료지원시스템의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새로운 변증지표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⁸⁾ 따라서 현재 한의대생의 진료기록부 작성경험이나 교육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후향적 연구설문지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했다.

본 설문지는 학생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로 이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을 진료기록부 작성 계기, 진료기록부 이해도, 진료기록부 작성의 어려움,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으로 나누었다. 이를 연구진 내부에서 1차 개발 후,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지도교수에게 1차 설문지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를 위해 설계한 설문지는 한의대생의 진료기록부 작성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문항은 이름, 학년, 소속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일반적 속성 3가지와 진료작성부 작성 계기에 대한 2문항,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해 받은 교육 2문항, 진료기록부 이해에 관한 2문항, 진료기록부 작성의 어려움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평가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각각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문제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 중 어려움을 느낀 부분을 주관식 기타 문항을 포함한 7개 문항으로 제시한 뒤, 그 정도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매기도록 하였다(Table 2).

3) 연구대상

D 한의과대학 내 의료봉사를 수행하는 5개 학생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설문시점 기준 133명의 학생단원에 연구 모집공고문과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공유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하여 응답을

Table 1. Overall Summarie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Major Category	Variable Name	Survey Question
Experience	Experience in writing medical records	Have you written medical records in volunteer activities?
	Medium used for writing	What types of medical records have you used?
Knowledge	Understanding of basic sequence of medical record	Please list the basic sequence of medical records.
	Understanding of medical record terminology	What is a chronological descrip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patient's main symptom from the first sign and/or symptom from the previous encounter to the present?
Difficulties	Experience of difficulties	Have you felt any difficulties while writing medical records?
	Reasons for difficulty	Among the options below, please select and rank three issues in order of difficulty(Table 2).
Education	Experience in medical record education	Have you ever received any medical record education?
	Types of education received	What education have you received so far?

수집하였다.

4) 연구 분석

설문 응답자의 학년과, 진료기록부 관련 지식 및 진료기록부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순위를 매기는 문항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각각 가중치를 3, 2, 1로 두는 식으로 순위를 반영하였다.

학년 분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학년 분류에 따라 한의예과 1학년, 한의예과 2학년으로 구성된 Phase 1 (P1), 한의학과 1학년과 한의학과 2학년으로 구성된 Phase 2 (P2), 한의학과 3학년과 한의학과 4학년으로 구성된 Phase 3 (P3)으로 학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항목별 가중치 응답수를 비교할 때는 학년별 응답인원이 달랐기 때문에, 개별항목의 가중치 응답수를 가중치 응답

수의 총합으로 나눈 '가중치 응답비'를 통해 비교하였다. 통계결과 분석과 시각화에는 Mac 용 Microsoft Excel (2024)과 Apple Numbers (version 14.2)를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검토

본 설문조사는 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DIRB-202409-HR-R-54).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참여 권리를 보호하였다.

Table 2. Difficulties Students Faced While Writing Medical Records

Survey Question	Response Options
Among the options below, please select and rank three issues in order of difficulty.	Being aware of questions they missed to ask
	Knowing what questions to ask
	Writing the answers under appropriate category
	Phrasing the answers in terminology appropriate for medical records
	Writing the medical record while simultaneously communicating with the patient
	Reviewing the patient's previous medical records
	Other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Academic Year	Completion of Medical Record Education	Completion of Clinical Education	Number of Respondents (count/%)
P1 [†]	Pre-medical Year 1	Not Completed	Not Completed	12 (14.6)
	Pre-medical Year 2	Not Completed	Not Completed	11 (13.4)
P2 [‡]	Medical Year 1	Not Completed	Not Completed	16 (19.5)
	Medical Year 2	Completed	Not Completed	19 (23.2)
P3 [§]	Medical Year 3	Completed	Completed	8 (9.8)
	Medical Year 4	Completed	Completed	16 (19.5)

* Non-respondent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total count.

[†] Phase 3

[‡] Phase 2

[§] Phase 1

III.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설문에는 총 133명의 대상 학생 중 80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는 Table 3과 같다. 학년별로는 한의학과 2학년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을 수료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각각 52.5%와 47.5%로 파악되었다. 임상 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총 29.3%를 차지하였다.

이때 일반적인 의료봉사활동에서의 역할에 따라 응답자들은 P1, P2, P3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5개의 학생단체에는 의료봉사현장에서 P1의 학생들이 환자 안내 및 예진을 맡고, P2의 학생들이 본진을 보조해 자침 및 술기 수행을 하며, P3의 학생들이 예진 결과를 수합해 간이 진단을 내리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본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각각의 학년의 교육적 배경은 Table 3과 같다. 연구가 수행된 D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한의학과 2학년 ‘병리학실습 I, II’과목에서 1년 동안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환자를 문진하고 실제 약을 처방해 그 경과를 연말에 발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학생들은 교육과정 상 처음으로 진료기록부의 항목과 그 의미에 관해 배우게 되며, 발표자료 역시 진료기록부 양식에 맞추어 제작된다. 이후 본 3부터는 임상 각 과목에서 개별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진료기록부 항목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중요성을 학습하게 된다.

2.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

봉사활동 중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의 유무에 대해 물어본 결과 89%의 학생들이 예진 또는 본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직접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들 전원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작성 경험이 없고, 종이에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전자차트를 작성하였다고 응답하였다(Figure 1).

학년별로는 한의예과 1학년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차트 작성 경험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작성 경험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때는 한의예과 1학년에서 한의예과 2학년 사이였다.

3.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 경험

전체 응답자 80명 중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Figure 2와 같았다.

특이한 점은 Table 3에서 본 것과 같이 한의학과 2학년부터 차트 작성 교육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과 2학년 이상에서 정규 교육과정 상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거나, 반대로 한의학과 1학년 이하 학년인데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을 받은 한의학과 2학년~한의학과 4학년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는 각각 순서대로 17.2%, 33.3%, 10.5%에 달했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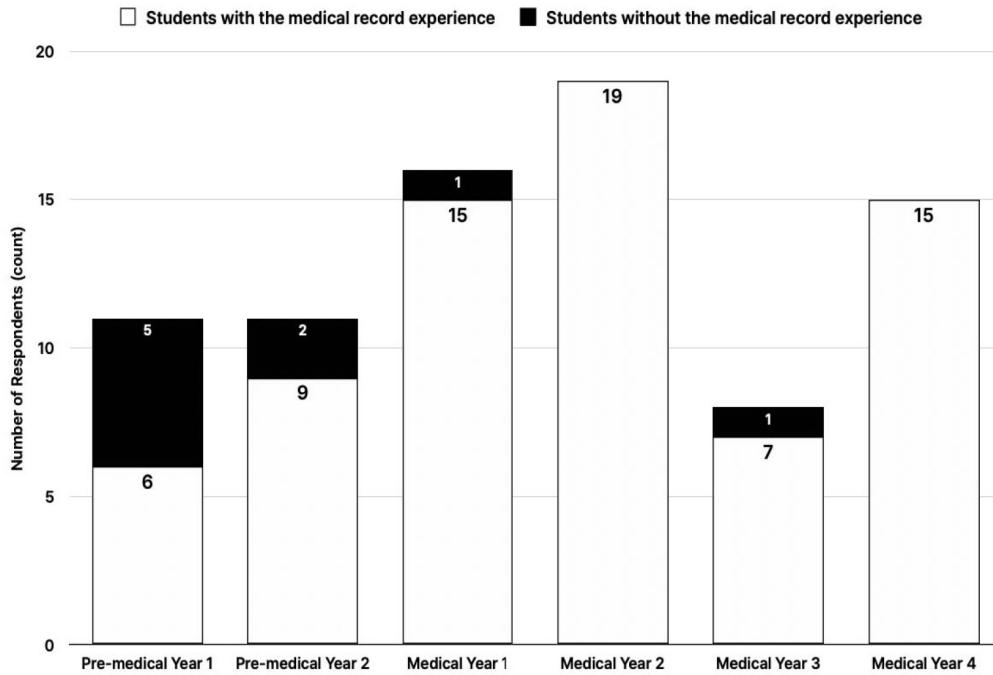


Figure 1. Students' experience with medical rec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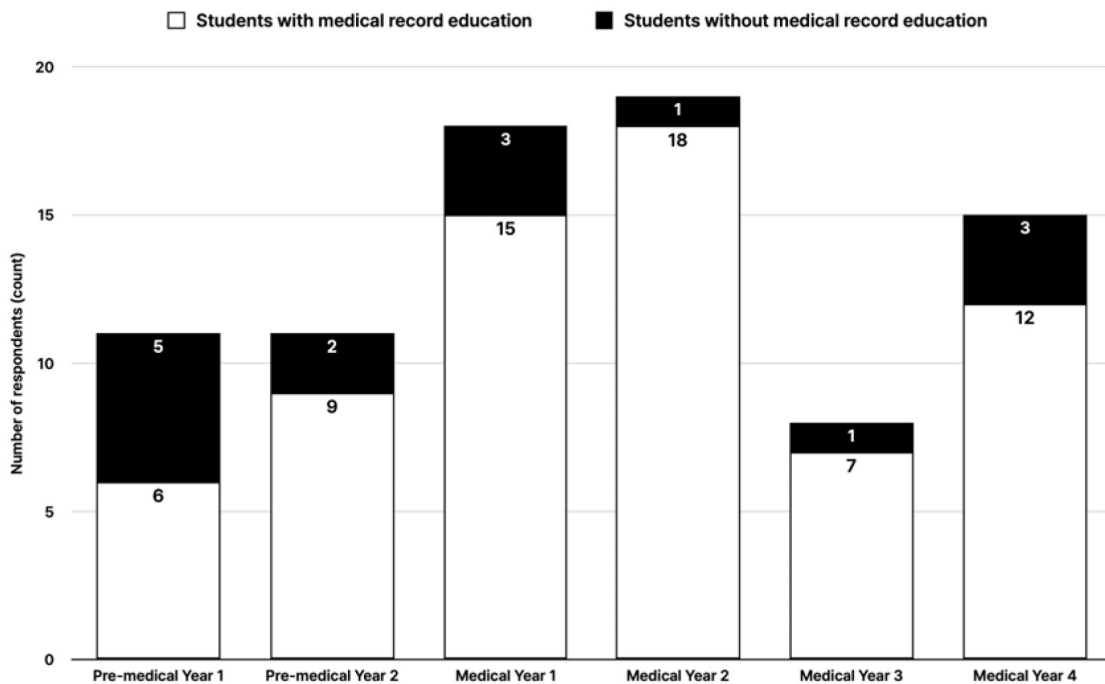


Figure 2. Experience in medical record education

4. 진료기록부 이해도

봉사활동 중 진료기록부 이해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무작위로 제시된 보기를 통해 진료기록부의 기본 양식인 SOAP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의 순서를 나열하였고, 현병력(Present Illness, P/I)의 정의를 보고 보기 중 P/I를 선택하였다(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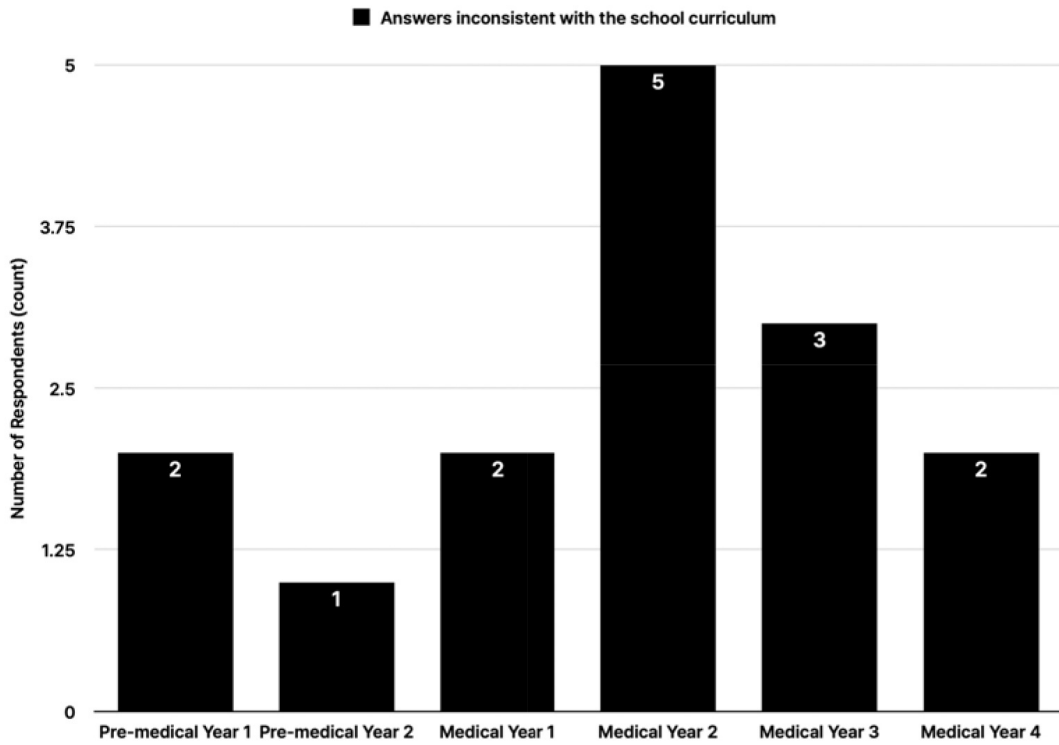


Figure 3. Answers inconsistent with the school curricul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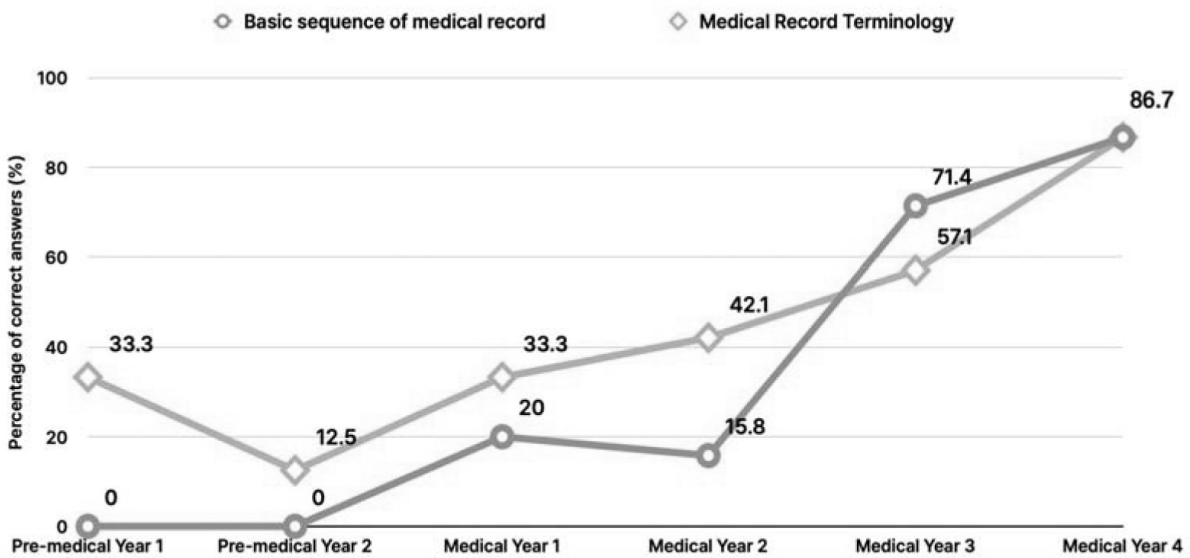


Figure 4. Students' understanding of medical record

1) 진료기록부 작성의 기본 순서 이해도

진료기록부 작성의 기본 순서를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이 있는 71명 중 21명으로 29.6%였다. 학년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정답률은 한의

예과 1학년과 한의예과 2학년에서 0%로 가장 낮았고, 한의학과 4학년에서 86.7%로 가장 높았다. 이때 정답률의 변화값은 한의학과 2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55.6%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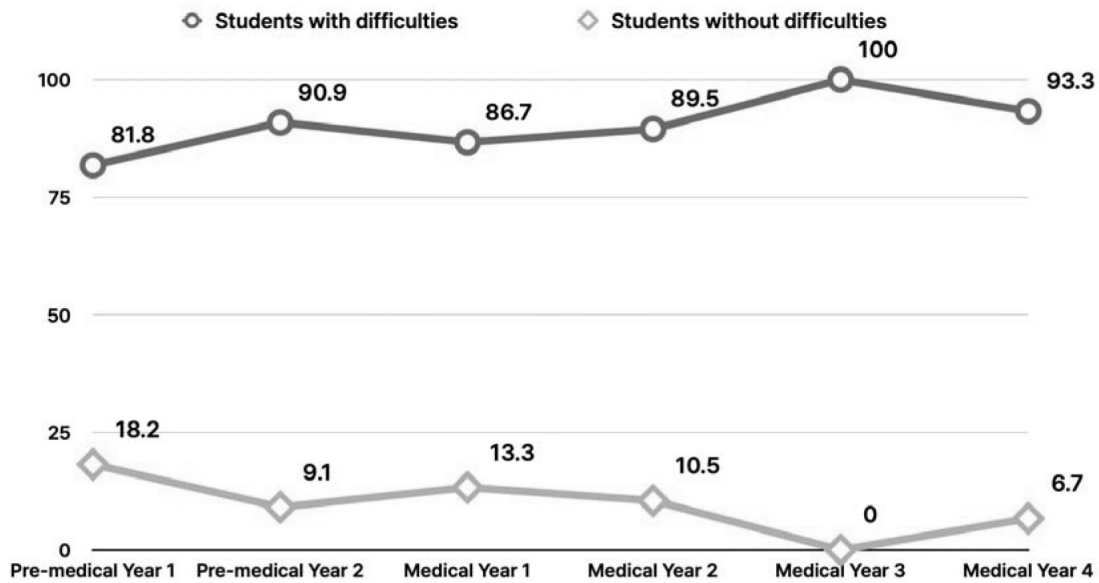


Figure 5. Rate of students who experienced difficulties writing medical records

2) 진료기록부 용어 이해도

진료기록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생의 비율은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이 있는 71명 중 30명으로 42.3%였다. 학년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정답률은 한의예과 2학년에서 12.5%로 가장 낮았으며 한의학과 4학년에서 86.7%로 가장 높았다. 학년별 증감률은 진료기록부 작성 순서 이해도보다 완만하였으며, 한의학과 3학년과 한의학과 4학년 사이에서 29.6%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5. 진료기록부 작성 시 느낀 주관적 어려움

1) 어려움 인식 여부

총 응답자 71명 중 63명(88.7%)의 학생이 ‘진료기록부 작성 중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분석했을 때 그 정도는 한의예과 1학년에서 81.8%로 가장 낮고 한의학과 3학년에서 100%로 가장 높았다 (Figure 5).

이때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 비율 분석한 결과 평균 증가율은 2.5이며, R²값은 0.5792였다. 즉 학년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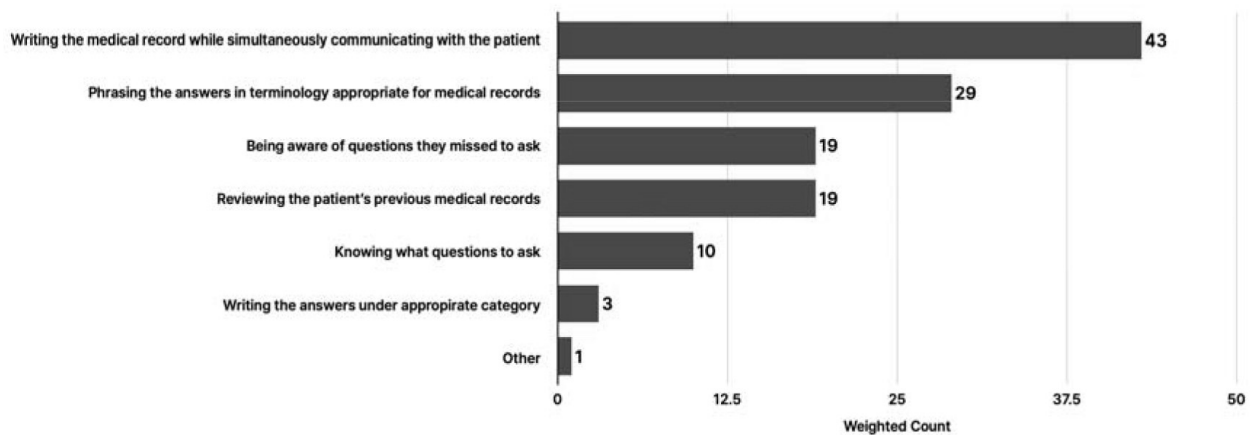


Figure 6. Reasons of difficulty in medical year 3 to 4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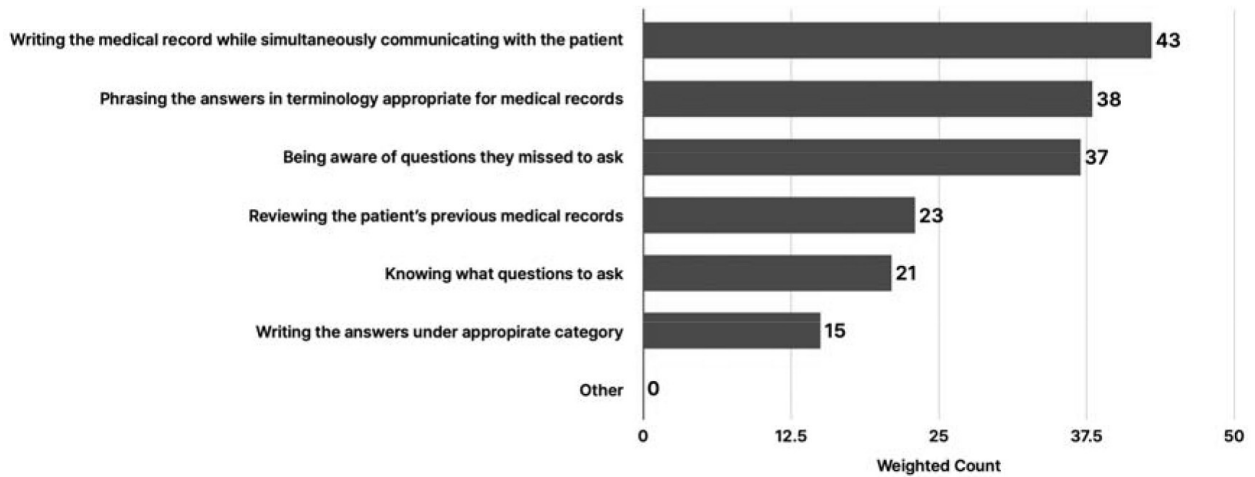


Figure 7. Reasons of difficulty in medical year 1 to 2 students

가하며 학생들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느끼는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다.

2) 어려움을 느낀 이유

가중치를 바탕으로 파악하였을 때 한의학과 3, 4학년으로 구성된 P3 그룹은 Figure 6과 같이 응답하였다. 특히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환자와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료기록부 작성 중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중치 응답수와 누적 응답수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응답되었다.

한의학과 1, 2학년으로 구성된 P2 그룹은 Figure 7

과 같이 응답하였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환자와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과 ‘환자의 말을 의무기록에 맞는 표현으로 작성하기 어려움’이 1, 2위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기록해야 할 항목 중 어떤 항목을 누락했는지 알기 어려움’이 이어서 3번째로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으로 대두됐다.

한의예과 1, 2학년으로 구성된 P1 그룹은 Figure 8과 같이 응답하였다. ‘환자의 말을 의무기록에 맞는 표현으로 작성하기 어려움’과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환자와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이 공동 1등으로 응답되었으며, ‘기록해야 할 항목 중 어떤 항목을 누락했는지 알기 어려움’이 3등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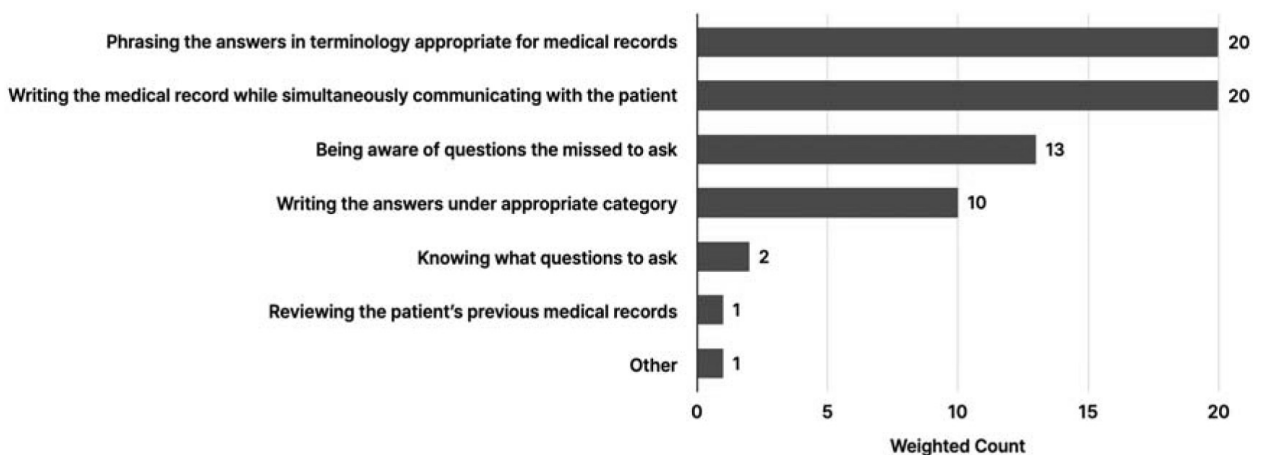


Figure 8. Reasons of difficulty in pre-medical year 1 to 2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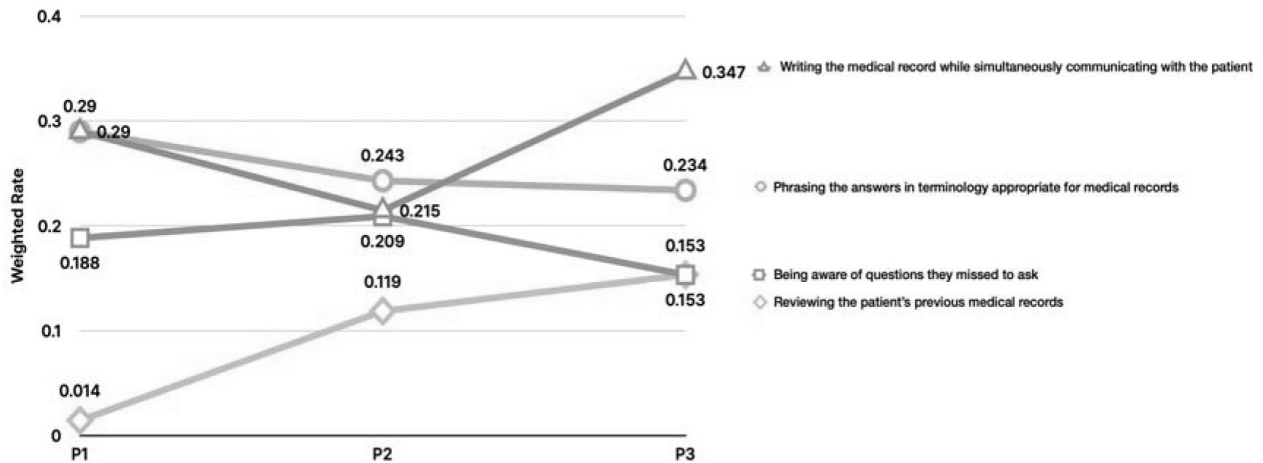


Figure 9. Changes of difficulties according to academic years

IV. 고 찰

1. 학생들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느끼는 어려움의 특징

1) 진료기록부에 관한 지식수준과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의 관계

Figure 4에서 본 것과 같이 학년이 올라가며 진료기록부에 관한 지식 수준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Figure 5에서 학년이 올라가며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 역시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진료기록부에 대한 지식이 상승한다고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감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년별로 호소하는 어려움의 경향

진료기록부의 구조나 용어에 대한 지식이 이미 기존의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면, 학년이 올라가며 학생들은 어느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Figure 9에서 가중치에 따른 응답 비를 보면, P1~P3의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비록 그 순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환자와 대화하는 것', '환자의 말을 의무기록에 맞는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 '기록해야 할 항목 중 어떤 항목을 누락했는지 알기 어려움'은 P1~P3 모두에서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 상위 3항목에 포함

되었다.

특히 P2가 환자와의 대화 없이 의료 술기를 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환자와 대화하는 것'이 진료기록부 작성 중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었다. 또한 '환자의 말을 의무기록에 맞는 표현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학년이 올라가도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기록해야 할 항목 중 어떤 항목을 누락했는지 어렵다는 것은 학년이 올라가며 제한적으로 해소되었으며, 환자의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6위(P1)에서 공동 3위(P3)로 상승하여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리하면 학교 교육과 반복적인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차트 작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진 시 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소통과 차트 작성을 병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차트 언어에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학생들의 진료기록부 이해도와 학교 교육

1) 진료기록부에 대한 이론적 이해

본 연구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료기록부 작성 순서에 대한 이해와 진료기록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답률로 파악하였다. 진료기록부 작성 순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

에 사용되는 SOAP 구조를 올바르게 나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진료기록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답률은 P/I의 정의를 주고 이것이 현병력인지를 맞히는지를 파악하였다.

설문 결과에서 진료기록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학년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진료기록부 작성 순서에 대한 정답률은 P1, P2 그룹과 P3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진료기록부 용어의 경우 의료봉사활동에서 지속적인 차트 작성을 통해 자기가 맡은 파트의 용어에 쉽게 익숙해지는 반면, 진료기록부 작성 순서에 대한 이해는 예진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평가와 치료계획까지 수행하는 본진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변화한다고 파악된다.

2) 진료기록부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학년이 높아지며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 교육과 자신이 속한 의료봉사 학생단체의 교육 등 다양한 식으로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흥미로웠던 점은 Figure 3과 같이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정규교육과정 상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거나, 반대로 정규교육과정 상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을 받은 한의학과 2학년~4학년에 정교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가 각각 순서대로 17.2%, 33.3%, 10.5%에 달했다는 것은 단순한 설문 상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D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을 파악하고, 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진료기록부 관련 교육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진료기록부에 관한 지식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올라갔지만,

지식이 늘어났다고 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높은 학년으로 갈수록 진료기록부 지식은 증가함에도 환자와 의료면담 중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학생에게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진료기록부에 관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임상 판단과 소통 기술과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진료기록부 작성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교육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받은 경험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실습과 교육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의 필수성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트에 관련한 임상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환자와 소통하며 기록 작성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P1~P3 그룹 간의 역할 차이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특화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⁹⁾¹⁰⁾

서론에서 논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상황에서, 이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한의대생의 진료기록부 작성 경험과 그 어려움을 드러내어 임상의학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차트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1개 한의과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주관적 응답에 기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학교의 학생 의견을 조사하여 교육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더 파악하거나, 기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조사로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임상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김건우, 김예지, 김현지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윤리적 측면

이 연구는 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DIRB-202409-HR-R-54)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참여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참고문헌

1. 연화준.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의무와 민사책임. 법이론실무연구. 2023;11(1):207-234.
2. 대법원 1994. 5. 19. 93도2544
3. 신권철. 의료인의 면허행위와 의료행위 - 규율방식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24;25(3):31-69.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1판. 서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583
5. 손연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5;26(2):245-269.
6. 김대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법학연구. 2016;48:65-91.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1판. 서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76
8. 김안나, 김상균, 이상훈, 오용택. 문진 실습 교육을 위한 진료지원시스템 만족도 연구. 한약정보연구회지. 2024;12(2):165-176.
9. 김선경, 이해웅. 한의과대학생들의 프로페셔널리즘 강화를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시론적 고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23;27(2):73-84.
10. 권상우, 신상우, 임병목. 한의학교육에 대한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대한한의학회지. 2012;33(1):1-11.